

2021 수능 이과수학 '기하' 제외 가능성

교육부 출제범위 연구용역...국어 '언어와 매체' 포함 관련 과탐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II 과목' 포함될 듯

고교 자연계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 관련 문항 가운데 '기하'가 오는 2021 대입수능능력시험 출제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열 국어영역에서는 일반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포함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그 연구팀이 최근 교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포함된 예시안이다. 유웨이중앙교육측이 입수해 지난 6일 공개한 예시안에 따르면 수학영역의 경우 1안과 2안이 복수로 제시됐다. 2021수능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른다.

자연계열 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은 1안과 2안 모두에서 '기하'가 출제범위에서 빠졌다. 실제 수능에서도 시험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수학에서 '기하와 벡터'는 수험생들이 고전하는 부분이다. 실제 '기하와 벡터'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 9문항(29점)이 출제되기도 했다.

인문계열 수학 나형의 경우 공통과목인 '수학'이 1안에는 출제범위에 포함되고, 2안에서는 제외됐다. 1안이 채택되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유웨이중앙교육측은 분석했다.

역시 1·2안으로 제시된 국어영역에서는 일반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어와 매체'가 포함된 1안은 현행 수능의 하위 출제영역(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평가체제의 안정적 운영은 가능하지만 일반선택을 출제범위에 모두 포함해 과목

선택 폭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어와 매체'를 제외하는 2안은 수능 과목 수(3개)가 지금과 같아 부담은 없지만, '문법' 과목이 제외돼 문법교육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2018 수능에서는 문법 5문항(11점)이 출제됐다.

관련 학계 등에서는 "이미 공통과목인 국어에서 문법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능 시험범위에서 빠질 경우 수험생들의

부담은 줄지만 문법교육의 약화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단일안으로 제시된 과학탐구 예시안에는 진로선택인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도 출제범위에 포함됐다. 진로선택과목 제외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이들 과목은 2009 교육과정에서부터 현행 수능에도 출제범위에 포함돼 있다.

영어와 사회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기존 출제범위와 별 차이가 없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8월 수능개편안 유예 발표 당시 2021학년도 수능시험 범

위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의 학습량을 고려해 이달 중 출제범위를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개편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절대평가 확대 논란으로 개편이 1년 미뤄지면서 수능 체제와 교육과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유웨이 중앙교육 관계자는 "2021학년도 수능은 새로운 교육과정과 기존 수능 체제가 결합하는 만큼 시험 범위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다문화 며느리들의 설 차려상 차리기 다문화가정여성들이 설 명절을 열을 앞둔 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차려상 차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용봉동행정복지센터와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설명절 예절배우기 행사는 광주시 종합주류 도매업협의회와 사단법인 광주 북구 한국전례원 북구지역원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파 덮친 전남 양식장 저수온 피해 눈덩이

66어가 46억여원 피해...재해보험 가입 36% 그쳐

지난달부터 이어진 한파로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등 전남지역 양식장 저수온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북구 한파로 전남 지역 해상 수온이 4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서양식장 저수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만 66어가, 311만 4000마리가 폐사했다. 신고액 기준으로 피해액만 45억5200만원에 달한다.

지난 3일 여수 18어가, 동류 161만6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여수에서만 63어가,

288만4000마리의 동류가 죽었다. 앞서 2일 신안에서는 전복종묘 5만마리가 폐사했으며, 영광에서는 송어가, 고흥에서는 동류가 저수온 피해를 입었다.

능성어, 동류, 조기, 쥐치, 송어 등은 저수온에 취약해 양식 어가에서는 사료 공급량 조절, 영양제 공급 등으로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피해 어가 가운데 24곳(36.4%)만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42어가는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지원

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저수온 피해로 확인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한도는 5000만원에 그친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여수 가막만과 남도~개도~돌산해역, 신안 압해도 북방 횡단~해남 화산면 서측 횡단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상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도 속출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1098건의 상수도 계량기 동파돼 수도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10명 중 3명 '반값 등록금'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8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원 늘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7 해질 18:07
달돋이 00:12 달질 11:38

추위 차차 풀려요
중국 상하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 많음 -9/2 보성 구름 많음 -11/1
목포 구름 많음 -7/0 순천 구름 많음 -8/3
여수 구름 많음 -7/3 영광 구름 많음 -11/1
나주 구름 많음 -11/1 진도 구름 많음 -6/2
완도 구름 많음 -5/3 진주 구름 많음 -11/1
구례 구름 많음 -10/1 군산 구름 많음 -11/1
강진 구름 많음 -8/3 남원 구름 많음 -13/1
해남 구름 많음 -8/1 흑산도 구름 많음 -2/2
장성 구름 많음 -12/0

◇비다 날씨
오전 풍향 파고(m)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5 서~북서 0.5~1.0
남부 먼바다 북서~북 1.5~3.0 서~북서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서부 먼바다(동) 북서~북 1.0~2.5 서~북서 1.0~2.0
서부 먼바다(서) 북서~북 1.5~3.0 서~북서 1.0~2.0

◇생활지수
매우높음
높음
매우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물때
간조 12:02 만조 07:01
목포 --:-- 19:11
여수 07:31 01:35
19:50 13:40

◇주간 날씨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6/6 -3/8 -1/7 -3/1 -4/5 -2/9 -1/11

전남대 '국악과 교수 채용 논란' 2R

재심결과 합격자 바뀌어...탈락자, 소송·감사원 감사 청구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채용과정에서 재심을 통해 심사결과가 번복되자 탈락자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명창 교수 공채에 지원한 A씨는 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이 부당하게 재심을 결정하고 원심에서 탈락했던 B씨를 최종 면접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학 교수 공채 공정관리위원회가 B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으나 이의신청 내용을 밝히지 않아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재심 심사위원 중 특정인은 B씨와 선후배 관계로 심사에서 빠져야 함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대학

측은 원심 심사 결과는 철저히 감추면 서도 재심 결과는 공개하며 B씨를 최종 면접 후보자로 발표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A씨는 원심에서 최종 면접 후보로 선정됐다 재심에서 탈락했다. A씨는 법원에 재심결정 효력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했다.

전남대는 "원심에서 전공 1단계 질적 점수가 응모자별로 상대적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 결정을 했고, 재심 과정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재심 심사위원 한 명과 B씨와 선후배 관계인 것은 규정상 제척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흥동 평화맨션 재건축' 내일 시공사 선정

지난 2014년 붕괴 위험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의 재건축에 단력이 붙게됐다.

6일 평화맨션재건축정비조합에 따르면 8일 정기총회 및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모아미래도' 컨설사가 제안서를 조합에 보냄에 따라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주민 투표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모아미래도가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 조합 측은 시공사와 함께 주변부지 매입에 나서는 등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할 예정이다.

조합측은 현 부지 6950㎡(약 2100평)에 주변 2300㎡(700평)를 추가로 매입해 27층 206세대 규모 아파트 1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김홍희기자 kimhy@

크기가 크고 선명한 노란색을 띄면 신선한 배!

나주 정직한농산물 기분좋은맛남

고마운 분들에게 나주(나)로 마음을 전하세요.

NAJU 나주시

NAVER 오색마을 검색
| 홈페이지 : http://www.fivecolor.co.kr